

# 2016년 창녕군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 연 수 국 : 중국(서안/한중/양현/화산)
- 연수기간 : 2016. 4. 21(목) ~ 4. 26(화)  
[4박 6일]
- 연 수 자 : 창녕군의회의원 등 16명  
[의원 10명, 공무원 6명]



창녕군의회



## 목 차

|                      |    |
|----------------------|----|
| I. 연 수 개 요 .....     | 1  |
| II. 연 수 일 정 .....    | 2  |
| III. 방 문 국 연 왕 ..... | 3  |
| IV. 방 문 장 소 .....    | 6  |
| V. 연 수 내 용 .....     | 8  |
| VI. 연 수 소 감 .....    | 24 |

#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6. 4. 21(목) ~ 4. 26(화) / 4박 6일간
- 연수국가 : 중국(서안/한중/양현/화산)
- 연수대상 : 16명(창녕군의회 의원 및 직원)
- 주요내용 : 중국 국립 따오기 자연보호구역, 공공기관 비교견학,  
지역특성을 활용한 우수 사례 견학, 지역문화탐방 등
- 소요예산 : 28,490,300원 정도(1인 1,675,900원)
- 목 적
  - 우포늪 따오기 자연방사 대비 중국의 관리실태와 성공사례 견학
  - 중국의 우수 습지 보전관리 상태와 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파악,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우포늪과의 비교견학
  - 개혁 개방 선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중국을 방문하여 주변국 국제화의 안목을 넓히고, 정치·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비교견학
  - 도농복합 도시의 농업 활성화 우수사례 견학 및 정책 반영
- 여행자 인적사항

| 구분            | 직 위       | 성 명 | 구분           | 직 위     | 성 명 | 비고 |
|---------------|-----------|-----|--------------|---------|-----|----|
| 의회의원<br>(10명) | 의 장       | 손태환 | 사무직원<br>(6명) | 전 문 위 원 | 신종열 |    |
|               | 부 의 장     | 안홍욱 |              | 전 문 위 원 | 조현철 |    |
|               | 총 무 위 원 장 | 박재홍 |              | 의사담당주사  | 하회근 |    |
|               | 산업건설위원장   | 박상재 |              | 사 무 직 원 | 송종진 |    |
|               | 의 원       | 김우식 |              | 사 무 직 원 | 변자영 |    |
|               | ”         | 이기호 |              | 사 무 직 원 | 황지영 |    |
|               | ”         | 장희용 |              |         |     |    |
|               | ”         | 이칠봉 |              |         |     |    |
|               | ”         | 유영숙 |              |         |     |    |
|               | ”         | 서경순 |              |         |     |    |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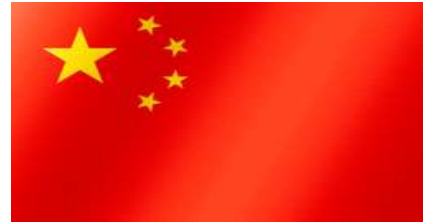
## 연 수 일 정

| 일자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기관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4/21<br>(목) | 창녕  | 김해  |                                    |                                      |      |
|             | 김해  | 서안  | 서안공항                               | 출국 수속 및 탑승(서안 향발)                    | 에어부산 |
|             | 서안  | 서안  | 광성호텔                               | 호텔 투숙 및 휴식                           |      |
| 4/22<br>(금) | 서안  | 서안  | 섬서역사박물관                            |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탐방                  |      |
|             | 서안  | 서안  | 대안탑/북광장<br>명대성벽, 소안<br>탑<br>서안시박물관 | 지역관광활성화 사례 견학                        |      |
|             | 한중  | 한중  | 백월호텔                               | 호텔 투숙 및 휴식                           |      |
| 4/23<br>(토) | 양현  | 양현  | 따오기국가습지<br>자연보호구                   | 따오기의 서식지 관찰                          |      |
|             | 양현  | 양현  | 따오기생태원                             | 따오기 개체수 증가를 위한 생태원<br>관찰             |      |
|             | 양현  | 양현  | 따오기박물관                             | 중국의 따오기 역사 및 생활관련<br>자료수집을 위한 박물관 탐방 |      |
|             | 양현  | 양현  | 야오자거우<br>[姚家沟]                     | 양현 습지지역 토질 및 환경오염<br>관찰              |      |
|             | 양현  | 서안  | 힐튼호텔                               | 호텔 투숙 및 휴식                           |      |
| 4/24<br>(일) | 서안  | 서안  | 아동복지센터                             | 중국과 한국의 복지형태 비교 및<br>시설 시찰           |      |
|             | 서안  | 서안  | 화청지진시향<br>릉<br>병마용박물관<br>장한가무쇼     | 지역관광활성화 사례 견학                        |      |
|             | 서안  | 서안  | 힐튼호텔                               | 호텔 투숙 및 휴식                           |      |
| 4/25<br>(월) | 서안  | 화산  | 화산                                 | 화산 문화탐방                              |      |
| 4/26<br>(화) | 서안  | 김해  | 서안공항                               | 출국수속 및 탑승(부산 향발)                     | 에어부산 |
|             | 김해  | 창녕  |                                    |                                      |      |

### Ⅲ

## 방 문 국 현 황

###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통상 줄여서 중국이라고 한다. 중국이라는 이 명칭은 3,000년 전 서주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맹자와 삼국지의 “촉지” 가운데 제갈량전에 나온다.

“중(中)”은 중앙·중심이라는 뜻이며 이는 중국이 세계의 중앙·중심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인들의 의식근저를 가장 단편적으로 잘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셋째, 인구로는 세계에서 첫째인 나라이다. 한족을 중심으로 주로 몽고계의 주변 여러 민족이 어울려 통일과 분열을 거듭하던 터전으로, 황하와 양쯔강 유역의 동부 평원 지대에 찬란한 중국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는 과학 문명이 뒤져 서양 세력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며, 일본 패망 후에는 공산당이 세력을 펴면서 대륙 부의 중국과 타이완섬의 타이완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 1. 지리(地理)

- 960만km<sup>2</sup> 세계 3번째, 한반도의 44배
- 한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3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육지
- 표준시 : 북경시 사용



## 2. 기후(氣候) : 온대 및 아열대성 기후

- 국토의 대부분이 온대 몬순권이나 영역이 크고 지형이 복잡하고 기후의 변화가 크다. 중국은 여섯 개의 온도대로 나누고 있다. 동북 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반면 남부지방인 해남성은 여름은 길고 겨울이 짧으며 동부 연해지방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난다습하다. 남부의 해남성은 연평균 기온 24도의 아열대 기후인 반면 북부의 흑룡강성은 연평균기온 4℃의 냉대기후권에 속하는 등 남북으로 큰 기후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서쪽의 청해, 티벳, 신강지역과 내몽고 지역은 고산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 3. 인구(人口)

- 인구 총수(人口) : 13억 74,370,000명  
: 전체인구의 70%가 국토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동부 연해 및 경작이 유리한 평원, 분지에 거주하며 지역별로는 동부 및 중남부지역에 총 인구의 57%가 집중되어 있다.
-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  
: 중국은 전 인구의 92%가 한족이며 그 외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55개 소수민족 중에서는 장족이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으로 90년 인구조사 시 1,549만 명이었다. 그 밖에 회족, 위구르족, 티베트족의 비중이 큰 편이며 중국 정부는 주요 소수민족에 대해 자치권을 확대해 주고 있다.

## 4. 언어(言語)

- 중국어(中國語) : 한어(漢語=보통화(普通話))
- 표준어(標準語) : 수백년동안 사용한 북방관화(北方官話)를 기초 방언으로 북경어를 표준음으로, 현대의 모범적인 구어를 어법 표준으로 함.

## 5. 정치(政治)

- 정 체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 정부형태 : 공산당 일당 독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
- 의 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 행정구역 : 22개성, 4개 직할시, 5개자치구(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6. 한국(韓國)과 중국(中國)의 관계(關係)

-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정부를 수립한 후 모든 친미국가를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으로 중국은 한국과 외교를 단절하고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73년 한국의 공산권 문호개방에 이어 1978년 중국의 제11기 제3차 전인대에서 중국이 개혁실효주의를 채택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과 중국관계의 우호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 70년대에 삼각무역 등 제 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류를 해오던 중에 1983년 5월 납치당한 중국민항기가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가 이루어졌다. 이때 중국은 대한민국의 정식국호를 사용하여 접촉을 시작하였고 양국은 체육, 관광, 이산가족, 친척방문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교류를 시작하였다.
- 그 후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 중국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여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졌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북경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서로의 선수단 교류가 있었다.
- 1990년에 들어와서 양국은 영사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여 새로운 교류의 이정표를 마련하였으며 1992년 8월 24일 북경에서 한중수교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 투자, 산업협력 등 양국의 경제 교류는 확대되었다.



## IV

## 방 문 장 소

| 분 야           | 장 소                  | 소 개                                                                                                                                                                        |
|---------------|----------------------|----------------------------------------------------------------------------------------------------------------------------------------------------------------------------|
| 따오기보호<br>관광분야 | 따오기<br>국가습지<br>자연보호구 | 중국의 유일한 따오기 자생지로 자연보호구내에 천여마리이상 따오기가 서식하고 있다, 우포늪 따오기 자연방사 계획에 따라 생태환경을 비교 견학 할 수 있다.                                                                                      |
|               | 따오기 생태원              | 부지면적이 1.5정보에 달하는 양현 따오기 생태원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과학연구와 견학, 보호를 일체화한 야생따오기의 사육번식기지이다. 생태원에는 따오기 사육장이 30개가 있으며 총면적이 1,000㎡에 달한다. 현재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따오기가 161마리가 있으며 면적이 1만여㎡에 달하는 훈련기지가 있다. |
|               | 따오기 박물관              |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로 6,000만년의 서식 역사를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심각한 위기종 명단으로 분류 되었다. 국가급 1급 보호동물로 동방의 보석으로도 불리는 따오기에 대한 역사와 서식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이 박물관에 전시 되어있다.       |
| 아동 복지<br>분야   | 서안 아동복지 센터           | 서안아동복지센터는 서안시 미중구 신가로 98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로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시설의 규모는 24,316㎡이며 수용정원은 700명이다. 시설의 근무인력은 총 164명과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다.                                      |

| 분야           | 기관명                 | 소 개                                                                                                                                                                                                                                                                                                                                                      |
|--------------|---------------------|----------------------------------------------------------------------------------------------------------------------------------------------------------------------------------------------------------------------------------------------------------------------------------------------------------------------------------------------------------|
| 역사활용<br>관광분야 | 진시황릉<br>&<br>병마용박물관 | 춘추전국시대의 혼란했던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br>시황제의 무덤으로 동서 485m, 남북 515m, 높이<br>약 76m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병마용에는 인간의<br>모습을 본떠 만든 8천 명의 실물 크기 병사들로 이루<br>어진 유명한 테라코타 군대가 있는데 현재도 발굴<br>중이며 완전 발굴까지 1백여 년이 더 걸릴 것으로<br>보고 있다.                                                                                                                                                       |
|              | 화청지                 | 화청지는 당 화청궁의 온천지이다. 관중 여산 서북<br>기슭에 있는 온천지로서 진시황 때 돌을 깎아 집을<br>만들어 명신들의 온천지가 되었다. 당 현종과 양귀<br>비의 연애시절에 매우 번성하였고, 한때 당 현종<br>시대의 정치 중심지이기도 했다.                                                                                                                                                                                                             |
|              | 섬서역사박물관             | 섬서 역사박물관은 중국 최대 규모와 최신식 시설<br>을 자랑하는 박물관으로 다롄타의 서북쪽에 자리하고<br>있다. 전시실은 연대별로 선사시대에서 주나라, 춘추전국<br>시대와 진나라 때까지를 전시하고 있는 제1전시실,<br>한에서부터 위·진남북조시대까지를 전시하고 있는<br>제2전시실, 그리고 수, 당, 송, 원, 명, 청대에 걸친 작<br>품을 전시하고 있는 제3전시실로 나뉜다. 서안이 중국<br>의 수도로 번성기를 누렸던 당나라 때의 유물이 가장<br>다채롭고 볼 만하다. 진나라를 대표하는 진시황릉 출<br>토품과 당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빛깔의 당삼채를<br>비롯한 진귀한 유물을 마음껏 볼 수 있다. |
|              | 명대성벽                | 1370년부터 1378년에 걸쳐 축조된 명대성벽(明代城壁)은<br>중국의 성벽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고성으로<br>유명하다. 오늘날 명대성벽 서안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br>가장 중요한 서안의 상징이다.                                                                                                                                                                                                                                   |
| 생태자연<br>관광분야 | 화 산                 | 화산은 높이 2,437m의 험준한 바위산으로 조양봉(동봉,<br>2,090m), 낙안봉(남봉, 2160m), 연화봉(서봉, 2,080m), 운대<br>봉(북봉, 1,614m), 옥녀봉의 다섯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br>으며, 산정에 이르면 위하평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br>서봉(2,080m)까지 케이블카로 이동하며, 총 길이는 4.2km<br>정도 이다. 케이블카설치로 관광객의 증가와 환경훼손의<br>정도를 비교 할 수 있는 곳이다.                                                                                                |

## V 연 수 내 용

### 서안

○ 방문일 : 2016. 4. 22.(금)

○ 내 용

- 면적 9,983km<sup>2</sup>, 인구 850만 명(2016년 기준)이다. 중국 섬서성의 성도이며, 행정구역은 8개의 구와 5개의 현으로 나뉜다. 관중분지의 중앙부로, 북쪽으로 웨이하강이 동류하고 남쪽에 중난산이 솟아 있는 곳에 위치한다. 서안은 주나라 무왕(武王)이 세운 호경에서 비롯되며, 그뒤 한나라에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국도(國都)로 변영한 역사적 도시로 그 동안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1943년에 시(市)가 설치되었다.
- 가장 번영했던 당대(唐代)에는 동서 9.5km, 남북 8.5km의 규모에 인구 100만이 넘는 계획적인 대성곽 도시를 이루어 멀리 서방에도 그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나 당나라의 쇠퇴와 그에 따른 병란으로 장안도 파괴되어 쇠퇴하였다. 현재의 시 구역은 명나라 때 구축한 주위 13k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와 교외로 되어 있다. 구시가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고도의 면모를 간직하는 한편 관공서와 상점 등이 밀집해 있다.
- 연평균 기온 13.3℃, 1월 평균기온 -1.3℃, 7월 평균기온 26.7℃, 연평균 강수량 604mm이다. 연간 강수량이 적어 공기가 탁하며, 그로 인해 먼지가 많다. 그래서 도시 설계 당시 가로수를 도로 양 옆으로 심어 습도를 조절하도록 조경되어있다. 성 밖의 동교·서교에는 신흥공업 지구가 형성되어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면방직·기계·항공기·비행기제조·전자공업 등이 활발하다.





▲ 서안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



▲ 서안 시내 도로의 조경

- 역사적 도시로 사적이 풍부하다. 남쪽 교외에 있는 쓰언사의 대안탑은 현장이 창건한 45m의 7층 전탑으로 그 위에서 조망하는 관중분지의 풍경이 뛰어나다. 그밖에 북서쪽에 있는 첸푸사의 샤오옌탑과 양귀비가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화청지가 유명하다. 또 성내에 있는 역사 박물관에는 부근에서 출토된 유물이 진열되어 있고, 북쪽의 비림에는 당·송나라의 고비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

## 서안 역사박물관

○ 방문일 : 2016. 4. 22.(금)

○ 내 용

- 대안탑 부근에 위치해 있는 현대화된 1급 박물관이다. 관람하는 데에는 한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2층 높이, 면적은 6km<sup>2</sup>인 섬서 지방 역사 전시관으로, 원시시대부터 1840년 아편전쟁 중에 섬서성에서 출토된 각종 전시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서쪽에는 2,500m<sup>2</sup>의 주제 전시관이 있는데, 주로 실크로드 등 섬서성의 역사, 문화 등에 관련된 문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주요 전시품은 청동기, 도용, 금·은 장신구, 당나라 무덤 벽화 등이다.



- 동쪽에 있는 2,555㎡의 역사문화전시관에는 주로 중국과 외국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전시품들이 있으며, 전국 각 성과 시의 문화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현대적인 시설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전시관 내에는 문물보호 센터, 도서관, 다용도 학술보고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시품과 자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동 조절 에어컨과 인공 조명시스템, 6개 국어 동시통역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서안 역사박물관



▲ 박물관 내 비휴상 앞에서



▲ 박물관 내의 관람



▲ 손금 전시물 앞에서

- 대안탑은 652년 당나라 고종 때 건립된 4각형의 누각식 탑이며, 명나라 때 외벽에 한 겹의 벽돌을 더 둘러쌓았다. 모두 7층이며, 전체 높이는 64m이다. 천축을 다녀온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석탑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자재와 비용을 구하기 어려워 표면만 벽돌로 쌓고 내부는 흙으로 채운 토심전탑을 세웠다. 이 탑은 견고하지 못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고, 701년에서 704년 사이에 측천무후의 명으로 허물고 다시 건립되었다.



▲ 대안탐 앞 현장법사 상 앞에서



▲ 대안탐

## ■ 양현 - 따오기 국가습지 자연보호구(따오기 생태원)

○ 방문일 : 2016. 4. 23.(토)

○ 내 용

- 따오기는 과거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였으나 산업화 및 농약 사용에 따른 먹이자원 감소 및 서식지 감소로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새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따오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1년 섬서성 양현에서 7마리만 발견된 매우 귀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다. 중국 정부는 야생의 7마리로부터 보호활동과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현재 야생과 사육개체를 합하여 1,600마리로 증식시켰고 양현 지역에 성공적으로 방사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질의답변

**Q** 이 곳에 따오기 국가습지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A** 1981년 멸종되어졌다고 알려진 따오기 7마리가 양현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양현이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따오기 사육장을 설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따오기는 낮은 구릉성 산지 일대에 활엽수와 침엽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한다. 양현은 그러한 점에서 따오기 자생의 적지이다.

**Q** 이 곳을 건립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A** 약 3억 원을 들여서 건립하였다.

**Q** 따오기는 하루에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A** 총 2번 사료를 배급한다. 오전에는 소고기와 새우를 다진 사료를 주고 오후에는 지렁이와 미꾸라지를 주고 있다. 하루에 약 7천원 정도 예산으로 사료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Q** 야외 케이지가 상당히 큰데 자연 방사와 대비한 특징이 있나?

**A** 이곳의 케이지는 야생 방사를 대비하여 방사지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먹이장소와 휴식장소가 구분되어 있으며, 햇대를 길게 만들어서 따오기들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Q** 1년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A** 1년에 약 5만에서 6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따오기를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Q** 국가에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A** 우리도 정확한 운영비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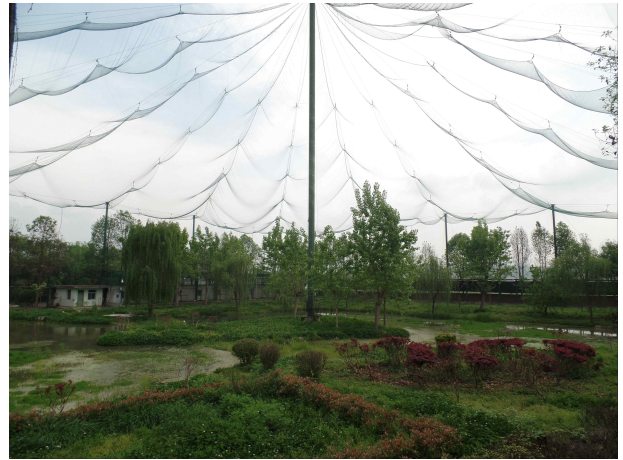
**Q** 사육장 곳곳에 일본 국기와 이름이 적힌 사육장을 봤다. 특별한 따오기인가?

**A** 정부 간 우호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따오기 보호장에 사육비와 일정 금액을 기증해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따오기이다.





▲ 벨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따오기



▲ 따오기 방사장



▲ 따오기 도입



▲ 따오기 전시물 앞에서



▲ 따오기 영상물 시청 중



▲ 따오기 박물관 관람



## ■ 양현 - 야오자거우[姚家溝](양현 습지지역 토질 및 환경 관찰)

○ 방문일 : 2016. 4. 23.(토)

○ 내 용

- 따오기는 양현의 야오자거우[姚家溝], 진자거우[金家溝], 찰차허[三岔河] 등지에 위치하며, 전 세계에서 매우 희귀조류인 따오기의 마지막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따오기는 일본의 3마리와 우리 창녕 우포따오기 복원센터, 그리고 베이징동물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따오기는 야오자거우, 진자거우, 찰차허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3km 근방까지 따오기가 자연 상태로 서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지원과 지도 아래 이곳의 주변의 논과 밭은 따오기가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다.



▲ 요가구 내 친환경 논과 밭



▲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들



▲ 친환경 농업 중인 농민과의 인터뷰



▲ 기념품 전달식

## ○ 질의답변

Q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들었다. 정부에서 따로 지원이 나오는지?

A 따오기가 서식하고 있는 주변 논은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1무(200평)를 기준으로 약간의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Q 주로 어떤 종류의 작물을 심고 있는지?

A 양현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해서 주로 벼농사, 유채꽃을 심는다.

Q 겨울철에는 어떤 농사를 짓는지?

A 겨울철에는 농사를 하지 않는다. 겨울에는 따오기의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과 밭을 따오기 먹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가 나온다.

Q 요가구 지역이 따오기 보호 구역 내라서 친환경 농법을 하는데 혹시 불만은 없는지?

A 일부 농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다.

Q 따오기를 자주 보는지?

A 이곳에서 따오기는 흔히 볼 수 있는 새이다.

## 서안 아동복지센터

- xi' an children' s welfare institution

○ 방문일 : 2016. 4. 24.(일)

○ 내 용

- 1985년 6월에 설립된 서안 아동복지센터는 아동양육시설로서 기본적으로 장애를 가진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생활보호, 교육보호, 취업 및 학업지도, 직업훈련, 결연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700명의 아동이 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96% 정도의 아이들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다.
- 유아부터 20세까지 아이들이 정부의 지원 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은 총 16개동에 건축면적은 24,316㎡이다.





## ○ 질의답변

**Q** 이곳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A** 이곳에는 주로 장애가 있어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 주로 들어온다.

**Q** 시설에 직원을 얼마나 있는지?

**A** 총 164명의 직원이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으로 지원되고 있다.

**Q** 시설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A** 0~6세의 아동들은 탁아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감 및 도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때마다 소풍, 생일잔치 같은 행사도 하고 있다. 7세 이후의 아동들은 장애가 있어 특수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중에 있다.

**Q** 정부보조금은 얼마나 지원 되며,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A** 아동복지센터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곳의 아이들은 96% 정도는 장애가 있어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라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될 수 없다. 본인 부담은 없다고 보면 된다.

**Q**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A** 성인이 되면 이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시설에서 나간 후 최대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서안 아동복지센터 앞에서



▲ 아동복지센터 기부금 전달식

## ■ 서안 - 화청지

○ 방문일 : 2016. 4. 24.(일)

○ 내 용

- 당 화청궁의 온천지이다. 관중 여산 서북 기슭에 있는 온천지로서 진시황 때 돌을 깎아 집을 만들어 명신(名神)들의 온천지가 되었다고 한다. 당 천보원년(742) 현종은 못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보수하였다. 못이 화청궁 안에 있기 때문에 화청지라고 명명하였다. 황제의 욕탕인 구룡전(九龍殿) 연화탕과 양귀비에게 하사한 욕탕인 해당탕(海棠湯) 등이 있다. 화청궁의 전체 구조는 6문(門), 10전(殿), 4루(樓), 3각(閣), 5탕(湯)으로 이루어져 있다.
- 화청지 내 정원은 낮에는 연못이 있는 관광지이지만 밤에 장한가무쇼의 무대가 된다. 장한가무쇼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이다. 연못을 배경으로 해서 연못과 뒤의 산, 화청지 내의 건물을 이용해서 연못 위에서 펼쳐지는 70분 동안의 공연은 환상적이었다. 장한가무쇼는 서안 여행의 별미라고 손꼽을 수 있을 것 같다.







▲ 화청지 양귀비 상 앞에서



▲ 화청지 정원 관람



▲ 화청지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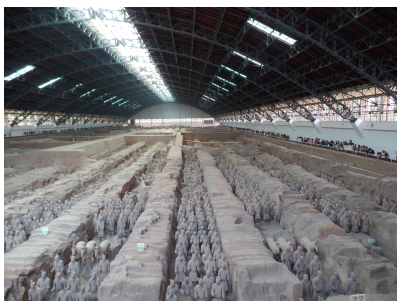
▲ 화청지 정원에서 펼쳐지는 장한가무쇼

## ■ 서안 - 병마용박물관

○ 방문일 : 2016. 4. 24.(일)

○ 내 용

- 병마용이란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 불멸의 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사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힐 만큼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 서안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진시황릉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 이곳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4년 중국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그제야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도 발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특이했다. 중국은 관광객들에게 한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씩 개방시켜가면서 또 서안을 방문하게끔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3개의 갱이 발견되었으며 700여개의 실물 크기의 도용(陶俑)과 100개가 넘는 전차, 40여필의 말, 10만 여개의 병기가 발굴되었다. 병기들 대부분이 실제무기이며 현재는 창고에 보관 중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도용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 복장, 헤어 스타일을 갖고 있어 그 섬세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병마용갱은 총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1호갱은 당시 농민이 처음 발견한 것이고, 후에 2, 3호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 1호갱은 세 곳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동서 길이가 약 230m, 남북으로 약 62m로 총 면적이 12km<sup>2</sup> 정도이다. 1호갱은 동서 쪽을 향한 긴 모양으로 장군과 병사가 배열되어있고, 2호갱은 면적이 약 6,000m<sup>2</sup>이며,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호갱은 발굴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시되어 있어서 뒤쪽으로 가면 현재 발굴 과정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3호갱은 면적이 520m<sup>2</sup>으로 ㅁ모양이며, 병마용들은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이 곳에는 말로 된 도용이 여러개 있어서 눈에 띄었다. 말 역시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제작해서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고 역시 인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호갱 역시 현재까지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학자들은 발견된 3개의 갱 외에도 진시황릉 근처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더 많은 병마용갱이 묻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 발굴이 진행 중인 1호갱



▲ 발굴 과정을 볼 수 있게 전시해놓음



▲ 목이 없는 병마俑들



▲ 병마俑 모형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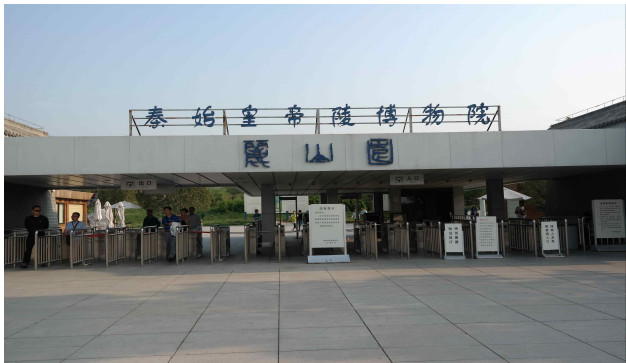
## ■ 서안 - 진시황릉

○ 방문일 : 2016. 4. 24.(일)

○ 내 용

-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 진시황(기원전 259~210년)이 여기에 묻혀 있다. 능묘는 38년간에 걸쳐 완공되었는데 무덤의 높이 76m, 둘레 2,000m이다. 측량조사에 의하면 능원은 내외 두 성곽으로 둘러졌고 내성의 둘레 2,525m, 외성의 둘레 6,264m이다. 무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야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내부는 개발이 되지 않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해도 내부는 볼 수가 없다. 진시황이 무덤을 설계할 때 훗날의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은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함정들을 설치해 두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비밀을 풀 수 없어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여 그 비밀을 풀 수 있을 때 발굴 한다고 한다.

- 진시황릉까지 간다고 해도 내부에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룡 위에 오르는 정도의 관광을 할 수 있다. 요새는 룡 주변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미니 전동카나 마차로 룡 주위를 돌거나 공원 주변에 전시해 놓은 옛 유물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 서안 - 명대성벽

○ 방문일 : 2016. 4. 25.(월)

○ 내 용

- 1370년부터 1378년에 걸쳐 축조된 명대성벽은 중국의 성벽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고성으로 유명하다. 오늘날 명대성벽 서안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장 중요한 서안의 상징이다. 명나라 초기에 당나라 장안의 황성에 기초하여 건조한 이 성벽은 중국 현존의 완전한 대형성벽이다. 평면은 장방형, 둘레 11km, 높이 12m, 정상 너비 12~14m, 밑의 너비 15~18m이다. 성벽의 네모퉁이에는 각각 각루가 하나씩 있다. 성벽의 사면에는 각각 주성문이 있고 성문에는 또 각각 정루, 전루, 망루가 있으며 성벽 밖에는 해자가 둘러져 있다.



▲ 명대성벽



▲ 명대성벽 중루 앞에서

## 화산

○ 방문일 : 2016. 4. 25.(월)

○ 내 용

- 화산은 높이 2,437m의 험준한 바위산으로 조양봉(동봉, 2,090m), 낙안봉(남봉, 2,160m), 연화봉(서봉, 2,080m), 운대봉(북봉, 1,614m), 옥녀봉의 다섯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으며, 산정에 이르면 위하평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서봉(2,080m)까지 케이블카로 이동하며, 총 길이는 4.2km 정도 이다.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의 증가와 환경훼손의 정도를 비교 할 수 있는 곳이다.
- 화산은 섬서성의 성도인 서안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화음시(華陰市)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옛날에는 태화산(太華山)이라고 불렸었다. 해발 2,200m의 높이를 자랑하며 중국 국가급 풍경구로 지정되어 있다.
- 화산은 중국의 유명한 오악(五岳) 중에 하나로 산세가 험한 편이다. 구불구불 곱어진 12km 길이의 등산로는 도처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있어 예부터 화산에는 하나의 길만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 화산의 오봉(五峰) 중에서도 동봉(東峰/朝陽-조양봉이라고도 불림), 서봉(西峰/蓮花-연화봉이라고도 불림), 남봉(南峰/落雁-낙안봉이라고도 불림)이 비교적 높은데, 동봉은 조양대라 불리는 전망대가 있어 새벽에 일출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전망대의 이름을 따서 조양봉이라고도 불린다. 서봉은 봉우리 정상의 취운궁 앞에 있는 거석의 모양이 마치 연꽃과 비슷하다고 하여 연화봉이라고도 불리며, 남봉은 화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이 남봉의 정상에 있는 노군동(老君洞)에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老子)가 은거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중봉(中峰/玉女-옥녀봉이라고도 불림)과 북봉(北峰/雲臺-운대봉이라고도 불림) 두 봉우리가 있다.



- 화산에는 명승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사당, 누각, 암벽조각 등은 산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으며, 화산에서 비교적 유명한 고적들로는 옥천원과 진무궁, 금천궁 등이 있다. 화산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져 있는 서악묘는 옛날 서악화산의 신에게 제사지내던 사당이다.



▲ 화산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 입구



▲ 절벽 속에 있는 화산 케이블카 종착지



▲ 화산 정상에서



▲ 화산 케이블카



## ■ 우포늪 따오기 자연방사 대비 중국의 관리 실태와 성공사례

[손태환 의장, 박상재 의원, 장희용 의원]

- 우리 창녕군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는 2017년 우포따오기 방사 대비하여 야생적응 방사장 및 채식지, 영소지, 쉼터 등 서식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때마침 우리 의회에서 이번 국외연수를 따오기의 자생 서식지인 중국 양현으로 오게 되었다. 양현에서 직접 따오기를 볼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다. 그리고 우리 군의 우포 따오기 자연방사를 대비한 준비 상황을 비교·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어서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양현에 오게 되었다.
- 서안에서 버스로 6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양현은 버스 안에서 줄곧 보아온 전형적인 중국 농촌의 모습이었고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과연 따오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우연찮게 버스 창밖을 보았는데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따오기 2마리를 목격했다. 양현의 친환경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자생하고 있는 따오기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굉장히 설레고 황홀한 경험이었다.
- 중국에서는 1978년부터 4년간 따오기를 찾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따오기 탐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1981년에 따오기를 양현지역에서 발견했고 따오기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양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사장을 만들고 따오기 자연번식을 위해 주변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따오기 복원에 힘썼다. 평소에 중국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신흥공업국, 황사의 주범이라는 것이 먼저 떠올라 막연하게 환경 보호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환경보호와 보존에도 관심이 많고 멸종 동물 복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라고 조금 다르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다.
- 따오기 생태원을 방문해서 따오기 사육장도 보고 실제로 따오기가

우는 소리도 들었다. 정말 따오기는 ‘따옉따옉’ 하는 울음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따오기 생태원의 현지인 해설사에게 한국에는 ‘따오기’라는 제목의 동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더니 해설사가 중국에는 따오기와 관련된 동요는 없다고 우리 동요를 알려달라고 했다. 기분 좋게 동요 한 자락을 부르고 나니 해설사와 한결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해설사를 통해 양현 내 생태원의 따오기 관리현황과 실태를 들을 수 있었고, 따오기 자생지 주변 농가를 방문해서 그 곳에 친환경 비료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농민과 따오기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농민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따오기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 농가 소득도 보전 받아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었고, 따오기와 사람이 공존하면서 양현에 관광객도 늘어나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말을 했다.

- 우리 창녕에도 2017년 이후 따오기가 방사되면 우포늪 근처 마을들의 농부들은 친환경 농업을 통해 따오기와의 공존에 힘쓰게 될 것이다. 농부들이 내가 사는 고장에 국제적인 멸종 위기의 새가 복원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 우리 군에서도 2017년 우포늪에 따오기를 자연방사 할 계획이 있다. 2008년 중국에서 한 쌍을 들여와 우포늪에서 복원에 들어간 지 9년만의 쾌거이다. 따오기 복원센터에서는 방사를 대비해 인근 논을 인공 습지로 바꾸는 서식지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현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인 만큼 실제 따오기가 정착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 창녕의 특산물이 양파와 마늘이라, 농산물의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한 걱정도 있다.
- 우리보다 먼저 따오기 복원사업에 먼저 뛰어든 일본에서는 급조된

인공 서식지가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우리 군과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기울인 노력을 생각해본다. 우리는 따오기 자연 방사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방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우포늪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따오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따오기 방사 시 인근 주민들이 따오기를 인생의 동반자로서 생각하고 보살피면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우포늪과 따오기를 보러 창녕에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 탐방객의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과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포늪과 따오기가 있어서 우리 창녕군 관광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 중국의 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견학

[안홍욱 부의장, 이철봉 의원, 김우식 의원, 서경순 의원]

-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떠오르는 여행지이다. 세계 3위의 거대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총 인구가 13억 명이 넘어 세계 인구 5명 중 한 명이 중국 사람인 셈이다. 중국의 거대한 영토에는 한족과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고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그 곳에 살고 있는 이들 소수민족의 독자적인 생활풍습과 건축물, 춤 노래 등은 중국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수 민족의 분리·독립 문제가 중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소수민족의 전통을 살리고 보존해간다면 중국의 중요한 문화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창녕도 중국 화산만큼 높지는 않지만 화왕산이라는 명산이

있다. 화왕산은 억새밭과 진달래 군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상부에 5만여 평의 억새밭이 펼쳐져 있어 10월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다. 국제적인 습지인 우포늪이 있으며 화왕산성, 술정리 3층 석탑, 가야 고분군 등이 읍내에 산재해있다. 이뿐이 아니라 부곡에 가면 한국의 온천 중에 손 꼽히는 부곡 온천, 남지 낙동강 변에서 해마다 열리는 유채꽃 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봄철의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되어 있다. 우리 창녕도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경남 내륙에 위치해 교통과 접근성도 좋다. 대한민국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 창녕에도 자연 훼손 문제만 해결 된다면 중국 화산처럼 화왕산 케이블카를 설치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다. 케이블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도 손쉽게 화왕산 정상에 올라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한 평원을 보고 가을에는 억새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곡 온천도 성수기인 겨울을 이용해서 겨울 축제를 개최하고, 온천장 내 시설을 고급화 하여 골프장과 온천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내륙지역인 만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도 좋지만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보물같은 관광지가 많다. 앞으로도 우리 창녕이 경남 제1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 개혁 개방 선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중국의 정치·문화 비교연구

[박재홍 의원, 이기호 의원, 유영숙 의원]

- 중국은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세운 이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중국은 1976년 덩소평이 집권한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개방 정책이 시작되었고,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시장 사회주의를 내세움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세금 제도, 금융 개혁 및 대외 무역 활성화 등이 이루어 졌고 닫힌 문호를 개방했으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으며 미국과 함께 G2국가로 부상 하게 되었다.



- 이 같은 중국의 발전은 미디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선입견은 많은 인구,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인 봄철 황사, 중국산 짝퉁 물건, 메이드인차이나라는 질 낮은 상품 등등 아직 발전이 덜된 신흥공업국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 하지만 처음 발을 디딘 서안 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의 국제공항이었고 서안 시내도 대한민국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악명 높은 중국산 먹을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한다. 중국 내의 농산물과 음식들은 자체 생산해서 바로 소비하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치지 않고 깨끗하나, 유통과정에서 나쁘게 변질되기도 하며, 중간 도매상들이 그 과정에 참여해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망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우리 창녕의 먹을거리도 우포누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6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평가위원회에서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대표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우포누리가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리 군은 그동안 우포누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자체 쇼핑몰([www.uponuri.com](http://www.uponuri.com)) 과 옥션, G마켓, 11번가 등에 창녕군관을 개설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리고 수도권·부산권 전광판 동영상 광고, TV광고 등 대도시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그 간의 노력이 이번 대상을 받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창녕의 친환경 농업 생산물의 유통 과정을 잘 관리해 중국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서안 시내의 모든 건물들이 다 거대했다. 서안 시내를 다니면서 눈에 띈 것은 거리에 10 ~ 30대의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우리 창녕은 농촌도시라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 2016년 4월 30일 기준 우리 창녕의 인구는 63,740명이고, 그 중 60대 이상이 22,250명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창녕에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창녕을 농촌도시가 아니라 도농복합도시로 탄생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정된 일자리가 생기고 그 기업에 일하러 온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 창녕에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창녕에 살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창녕의 인구도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창녕의 행복한 청사진을 그리다보니 나는 중국의 엄청난 인구가 부러워졌고, 이들이 곧 중국을 먹여 살릴 인재가 될 것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개방 정책과 공업화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첫째, 사회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수준차도 커졌다. 둘째, 중국의 새로운 공업 도시에 서양의 문화가 너무 빠르게 전해지면서 문화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셋째, 동부 해안에 있는 공업화 지역의 도시에는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러는 농촌 지역 인구가 몰려들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관료들의 부정부패, 황금 만능주의가 넘쳐나는 사회,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불만은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두 가지를 섞은 정책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하는 가에 중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국 거리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모습, 무단 횡단의 일상화, 교통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걷는 게 더 이상할 정도의 혼잡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중국은 급속한 경제 사회발전에는 아직 국민들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선진국이 되기에는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아직 국민들 내부 의식 수준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중국의 발전하는 외형만큼 그에 걸맞은 국민 의식이 필요할 것 같다.
- 서안과 양현, 한중을 돌아보기에는 4박 6일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부지런히 다녔고 많이 보고 느끼고 왔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 자원, 경제력 그리고 13억 중국 인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눈으로 보고 왔다. 최근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발전에는 중국인 특수가 있다고 한다. 우리 창녕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따오기 자연 방사라는 좋은 호재가 있다. 중국 내에 중국 양현의 따오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부화해서 개체수를 늘려 나간 과정과 이번 방사사례까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중국의 우수한 관광 사례, 따오기 자연방사 사례를 참고 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계발 발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번 연수가 앞으로 우리 창녕군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